

오늘의 성가

입 당	25	사랑의 하느님	성 체	163 178	생명의 성체여 성체 앞에
봉 헌	210 217	나의 생명 드리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파견	402	세상은 아름다워라

말씀의 초대 ■ 모세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그들 가까이, 곧 입과 마음에 있기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셨다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드시며,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이르신다(복음).

제 1 독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30,10-14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9(68),14 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 참조)

후렴. 가난한 이들을 찾아라.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가난한 이들을 찾아라,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입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 가난한 이들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떨치지 않으신다. ◎
 ○ 하느님은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

제 2 독서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5-20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25-37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윤창학(스테파노), 조남이(안젤라)의 영혼을 위하여 - 심윤조(이피제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홍원기(에우세비오)가족 ▪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 ▪ 김비오, 마리안나 가정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

 **지난 주 우리의 정성**

6/30 KCC 주일 헌금	\$ 1,047	6/30 OLM 주일 헌금	\$ 3,540	6/30 미사 참여자 수	163 명
7/7 KCC 주일 헌금	\$ 1,275	7/7 OLM 주일 헌금	\$ 3,733	7/7 미사 참여자 수	178 명
교무금 (\$1,560)	한광동(7-8)	임문수(7)	정진오(4-6)	백영숙(1-5)	성낙순, 이순영(6)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공동체 소식

◆ 2차 헌금 안내

• 다음 주일(7/21)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 \$48
 • 구독 기간 : 2019년 9월 ~ 2020년 8월
 • 개편되는 주보에는 매일미사 독서와 복음이 수록되지 않습니다.
 • 문의 :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주보 광고주 모집

• 새주보가 칼라로 9월 첫 주부터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보발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주 섭외가 교우분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15여 업소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판에 격주로 년 200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mazonSmile 실시

• Amazon 을 통해 구매하시는 상품가격의 0.5%를 Amazon 에서 에디슨 한인성당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 smile.amazon.com 으로 이용바랍니다.
 •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Gift 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amazonmile/>

◆ 본당발전기금 마련 골프대회

- 일시 : 9월 2일(월)
 - 장소 : High Bridge Hills Golf Club

◆ 야외미사

• 본당 야외미사가 10월 6일(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2019 북미주 성령대회 (24 차 미동북부)

- 일시 : 7월 20일(토) - 21일(일)
 - 장소 : Felician University
 - 참가비 : \$40 (토-점심, 저녁 / 주일-점심 포함)
 - 신청 및 문의 : 정 요세피나 (908-672-1515)

◆ 7월 푸드 컬렉션

• 푸드 컬렉션이 7/27-7/28 양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평화의 모후께 마치는

목주기도 백만단 봉헌 달성 기념 미사

- 일시: 7 월 26 일(금) 오후 8 시
- 장소: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19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 일정: 8:00 pm 미사
9:00 pm 목주기도(영광의 신비)
9:30 pm 리셉션(노틀담 학교 카페테리아)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9 월 6 일 ~8 일
- 장소: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 240
- 문의: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결혼 25 주년, 50 주년을 기념하여 혼인서약을 새롭게 하는 혼인갱신식이 체키오주교님 주례로 있습니다.
- 일시: 10 월 27 일(주일) 오후 4 시
- 장소: St. Francis of Assisi 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https://diometuchen.org/offices-and-ministries/family-and-pastoral-life/family-life/silver-and-gold/>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테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 월 15 일(월) 저녁 8 시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미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 모임

- 일시: 7 월 16 일(화) 저녁 7 시 30 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전례회의

- 7 월 전례회의는 없습니다.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7 월 28 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루카 10:25-37(연중 제 15 주일)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루카 10,31,32)

1. 예수님께서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치는 마음들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내 도움이 필요했던 누군가를 지나쳤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루카 10,33)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짜맨 다음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루카 10,34)

2. 하느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엾은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연민입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경험이 있나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루카 10,36)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3.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찾는 기쁨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는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 루카 10:38-42(연중 제 16 주일)

1. 마르타가 보는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요? 느껴지는 대로 나누어 봅시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루카 10,41)

2. 예수님은 불평을 하는 마르타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로 살십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마르타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42)

3. 내가 선택한 ‘좋은 몫’은 무엇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좋은 몫’이 가져다 준 기쁨이 있나요?